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 산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두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다.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출연의 필요성

-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3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현재 본부(2부문 2실 5부 2센터)와 지점(4지역본부 25지점 8센터)에 임원 2명, 정규직 460명, 기간제 218명을 포함해 68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2022.6월 말 기준)

구 분	정 원 內					정 원 外		합 계
	소 계	임 원	정규직			소 계	기간제 근로자	
			일반직	전문직	지원직			
현 원(명)	462	2	394	27	39	218	218	680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단의 사업유형은 고유사업, 대행사업, 수탁사업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 <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사업 >

구분	주요사업	재원
고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li> <li>◦ 구상권 관리</li> <li>◦ 경영 지도(창업·경영 컨설팅)</li> <li>◦ 기본재산 관리</li> </ul>	출연금
대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li> <li>◦ 서울형 마이크로크래딧 지원</li> <li>◦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li> <li>◦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li> <li>◦ 로컬브랜드 육성</li> <li>◦ 청년골목창업 지원</li> </ul>	대행사업비
수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li> </ul>	수탁사업비

#### 다. 출연의 적정성 검토

-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출연금 규모가 대폭 증가함.
-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경기회복을 예상하여 출연금을 659억원으로 축소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무보증료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100억원<sup>2)</sup>을 증액하면서 출연금 규모는 759억원으로 증가함.

<sup>2)</sup> 무보증료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재원 : 49억원, 무보증료 금융지원 관련 보증료 보전 재원 : 51억원

### <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추경
출 연 금	48	66	910	1,535	659	759

- 2023년 출연금은 안정적 보증공급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sup>3)</sup>를 10.6배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신용보증재원을 630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임.

### <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규모 및 운용배수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예상)	2023년(예상)
보증공급액	18,780	51,249	55,707	26,000	22,500
보증잔액 (A)	42,377	79,313	103,199	103,899	97,599
연간 출연금 조성액	633	2,302	1,900	1,154	1,230
서울시	66	810	809*	534**	630
정 부	-	102	41	-	-
자치구	3	146	330	50	50
금융회사법정출연	41	49	101	100	100
금융회사등 협약출연	523	1,195	619	470	450
당기순손실	397	926	788	1,172	1,19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	-	-	-
기본재산(B)	6,388	7,764	8,876	8,864	9,196
운용배수=(A/B)	6.63	10.22	11.62	11.72	10.61

※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차액분)

\* 2021년 브릿지(개인)보증 재원 240억원, 보증료 보전재원 393억원 및 국비 93.3억원 제외

\*\* 2022년 보증료 보전재원 225억원 제외

- 최근 국제기구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통화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미국발 고금리와 강달러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으로 인해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단은 경기악화 대응, 재무건전성 유지, 대위변제 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을 10배 수준으로 유지함.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음<sup>4)</sup>.

- 우리나라도 전년 동기 대비 기준금리가 2배(2021.8.26. : 0.75% → 2022.8.25. : 2.5%) 이상 급상승하면서 코로나19로 대출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2023년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임.
- 한국은행은 지난 8월 25일,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보다 0.5%포인트 감소한 2.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인 2%보다 3.2%포인트 높은 5.2%로 전망함.
- 이처럼 내년도 국·내외 경기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는 공적 정책금융 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을 강화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는 취약경제계층을 위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공적 보증공급이 필요함.
-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새출발기금”<sup>5)</sup>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대위변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

4) IMF : 4.4%(2022.1.) → 3.2%(2022.7.), OECD : 4.5%(2021.12.) → 3.0%(2022.6.), WB : 4.1%(2022.1.) → 2.9%(2022.6.)

5)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로, 채무조정 인용시 캄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가액 대비 20~35% 수준으로 매입하여 관리함.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예상하는 최대 손실은 연간 4천억원 이상이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산에 2,166억원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손실보전을 위한 국비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므로 국비 지원과 서울시 출연금 증액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